



구분창 사진작가의 전시가 ACC 복합전시관 3·4관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열린다. 도자기와 왕관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

#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 ‘사물의 초상’을 만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난 연말과 올 봄까지 개최한 전시는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ACC에서 다시 대규모로 전시를 열게 됐는데 공간의 크기에 압도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전시를 해야 할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한국 현대사조의 선구자로 일컫는 구분창 작가.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에서 개인전(2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을 연다.

2024 ACC 포커스 ‘구분창: 사물의 초상’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분창 작가를 만났다.

이번 전시는 ACC가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시리즈 ‘ACC 포커스’ 일환으로 기획됐다. 첫 예술가로 한국 현대사조의 선구자인 구분창 사진작가를 초대한 것. 특히 이번에는 미공개 영상 작품 ‘코리아 판타지’가 최초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자주색 자켓에 검은 빨데 안경, 희끗희끗한 머리는 작가 특유의 분위기가 났다. 학자의 분위기도 배어 나왔는데, 평생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

## ‘ACC 포커스’ 구분창 개인전

22일 개막... 내년 3월 30일까지  
조선 백자·신라 금관 등 유물연작  
한강·안성기 등 인물 초상도 전시

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였다.

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테마를 했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다”며 “작업한 것 가운데 사물에 집중을 해보면 충분히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사물은 그 자체 존재 외에도 바라보는 자, 소유하는 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환기한다. 거대 서사와 미시서사는 물론 그 안에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를 담고 있다. 특히 구 작가의 사진은 피사체의 물성과 그 내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물을 촬영했음에도 초상사진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구분창 작가

보여줄 수 없을까 고민했다”며 “대형 스크린 안에 펼쳐진 단정은 색깔과 형태를 반복적으로 바꾸며 강렬한 패턴을 리드미컬하게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가 우리 한국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넘어 천차

별 작품을 사진 외에도 영상 등 다양하다.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많아” 98년 개인전 당시에도 영상을 활용한 적이 있다. 특히 이번 작품 가운데 한국 고유의 단청은 영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구 작가는 “단청에 숨어있는 더 깊은 것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없을까 고민했다”며 “대형 스크린 안에 펼쳐진 단정은 색깔과 형태를 반복적으로 바꾸며 강렬한 패턴을 리드미컬하게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가 우리 한국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넘어 천차

을 하게 됐던 것은 70년대 독일 유학 당시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정서’ 때문이었다.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뭐가 있을까,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번 전시장에 ‘한국적인 작품’이 많이 걸려 있는 것도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는 그의 렌즈를 통해 다양한 해석으로 전이된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역사를 품은 사물에 숨결을 입히다’는 역사적 배경을 품은 유물을 만난다. 한국전쟁유물, 조선 백자, 신라 금관 등 유물 연작을 영상과 설치작품으로 변주했다. ‘백자 연작’은 해외로 유출된 백자를 촬영한 작품들로 구성해 10미터 높이의 ACC 전시장에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족자 작품으로 천장에 매달린 백자들의 모습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장면을 연상시킨다.

2부 ‘일상 속 사소한 사물을 발견하다’는 구 작가가 발견한 사물 연작이 주제다. 소장품을 촬영한 ‘컬

렉션’을 비롯해 15세기부터 프랑스 고건축물의 장식인 샤흐루를 담은 ‘샤흐루’, 빈 상자 혹은 비어있는 공간을 주목한 ‘인테리어’와 ‘오브제’, 일상 사물인 ‘비누’ 등 다양한 연작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3부 ‘구분창의 시선과 마주하다’는 피사체가 됐던 수집품, 대중매체와의 협업 작품 등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촬영했던 작가 한강, 배우 안성기 등 예술인들의 인물초상작품을 전시한 공간이다.

구 작가는 한강 작가 사진을 촬영했던 에피소드도 들려줬다. “한강 작가 사진은 지난 2003년도에 촬영한 작품입니다. 당시 어느 단체에선가 영화감독, 기업인, 건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앞서가는’ 여성들을 선정했죠. 닥에 방문해 서재에서 촬영했는데 벽면에 걸린 이번 사진은 아파트 밖 놀이터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그날 비가 내려 우산을 들고 촬영했는데 한강 작가는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강인한 면들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 은빛 자작나무가 전하는 울림

최석 ‘그 자리에서 있다’ 전, 28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자작나무는 언제 봐도 사색하는 철학자의 느낌이 묻어난다. 깊은 사상에 빠진 시인의 이미지도 배어 나온다. 은빛의 나무는 신비로우며 우아함, 경건함을 준다.

최석 작가의 작품 속 자작나무는 꿈을 꾸는 듯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전해준다.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내면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최석 작가 초대전 ‘그 자리에서 있다’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전남대 박물관이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는 자작나무 작품은 모두 15점. 최 작가는 지금까지 삼라만상의 근원적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늦가을 무렵의 하얀 나무껍질

의 ‘자작나무’는 삶에 대한 의미와 본질 등을 사유하게 한다.

화폭 속 자작나무는 밝은 빛으로 겹겹이 생명을 감싸고 있는 존재로,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한다. 하얀 나무껍질 위에 드러난 크고 작은 생체기는 나무라는 존재의 일생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삶을 사유하게 한다. 여느 나무와 달리 동일감을 준다는 것은 자작나무가 지닌 미덕이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자작나무’가 발하는 깊고 사색적인 의미를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만추의 계절에 자작나무가 전하는 무언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서 있다’

최석 작가의 작품은 전남대 박물관에서 오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화음악가 이병우 ‘기타, 영화를 만나다’

광주예술의전당, 26일 ‘11시 음악산책’ 마지막 공연

“왕의 남자”, ‘괴물’, ‘정화홍련’, ‘마더’ 등 영화 OST를 연주한 기타리스트, ‘핑거스타일 1호 연주자’, ‘다양한 장르를 표현하는 멀티 기타 플레이어’.

기타리스트이자 영화음악가인 이병우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와 함께 영화음악 OS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기타, 영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11시 음악산책’ 마지막 공연을 펼친다.

작곡가 조동익과 함께 1980년대 포크 듀오 ‘어떤날’로 데뷔한 이병우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클래식 기타과),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이후 영화음악에 주목, 제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과 제18회 부일영화상 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영화 ‘관상’, ‘국제시장’ 등에서 총 30여편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왕의 남자’에서 ‘가려진’을 직접 작사·작곡했으며 영화 ‘해운대’에서 ‘놓지 못하는 손’, ‘불꽃놀이’를 연주했다.

이번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호준, 최지은과 비올리스트 조재현을 비롯해 정광준(첼



이병우

로), 김민기(더블베이스)가 출연해 현악 5중주 선율을 선사한다. 진행에 아나운서 이상협.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영화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토크를 곁들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각설이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의 아픔 ‘He Story’

나빌레라예술단 창작 초연극

23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광주천 아래서 살던 ‘각설이’는 어느 날 진짜 광주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곁을 나선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과 광주학생운동에 깃든 아픔을 한국 무용으로 표현하며 비통한 감정을 승화시킨다.

나빌레라예술단(대표 한명선)이 창작 초연극 ‘He Story’를 오는 23일 오후 4시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각설이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의 아픔을 몸짓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품이다.

공연은 여름·봄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인간의 아픔을 투영했다.

1부 ‘흘러 흘러(여름)’는 광주천에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각설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장면, 그로부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운명을 그린다.

이어 ‘환벽당에 취하다(가을)’는 광주천을 벗어나 환벽당에 이르며 마주한 광주 문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옛 선비들의 글과 그림을 통해 각설이는 풍



‘나빌레라 예술단’의 공연 장면.

〈나빌레라예술단 제공〉

류를 뿜내고 선비 정신과 동화한다.

‘광산 송정의 하늘’을 표현한 겨울 대목도 있다. 광산 송정동 하늘에 눈이 내리던 날, 국장 임방을 선성을 기념하는 공연에 도착한 각설이가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설움타령을 펼친다.

끝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된 봄(벚꽃에 물들다)’이라는 주제에 실린 희망찬 광주의 이데아는 연분홍 벚꽃 같은 가부악 레퍼토리에 담겼다.

한명선 대표는 “극 중 과거의 시공간을 벗어나 오늘날 광주에 도착한 ‘각설이’는 유·무형유산, 수려한 무등의 풍광을 마주하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한다”며 “‘빛’을 품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각설이의 광주 여행을 영상과 음악을 곁들인 무용극으로 풀어낼 예정이다”고 했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한국학호남진흥원, 21일 ‘시권’ 모티브 학술대회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이 치러졌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에게 시험은 중요한 관문이자 통과리였다.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모티브로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오는 21일(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 김남주홀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권을 매개로 조선 선비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먼저 전북대 송만우 교수가 ‘조선시대 시권의

종류와 그 특징’을 발표한다. 이어 KAIST 김광년 교수가 ‘조선 과거 자료의 존재 양상과 그 분류 시론’을, 국립진주박물관 이효종 학예사가 ‘시권의 대중화 및 활용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전북대 류호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홍영기 원장은 “오늘날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은 중요한 관문이었던 것처럼 조선시대 과거시험도 마찬가지였다”며 “시권을 통해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지혜 등을 오늘날의 시대에 활용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